

성별 소득격차의 분해: 자영업과 임금근로의 비교*

최 강 식** · 정 진 화***

논문초록

본 연구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요인을 분석하였다. 소득격차의 요인분해는 Oaxaca and Ransom(1994)의 분해기법을 사용하였고, 산업별·직업별 분석을 병행하였다.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패널 조사 1차~6차 자료가 사용되었다. 전체적으로 보면,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크며, 이는 자영업에서 가격 차이(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 및 차별)에 의한 소득격차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요인별 기여도는 산업 및 직업에 따라 차이가 크다. 따라서 성별 소득격차의 완화가 정책목표라면, 임금근로뿐 아니라 자영업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 및 직업별로 특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핵심 주제어: 성별 소득격차, 차별, 자영업

경제학문헌목록 주제분류: J7

* 유익한 심사를 해 주신 익명의 두 심사자에게 감사드리며, 아울러 본 연구는 2006년도 연세대학교 학술연구비 지원을 받았음을 밝힌다.

** 제1저자, 연세대학교 경제학부 교수, e-mail: kangchoi@yonsei.ac.kr

*** 제2저자, 서울대학교 농경제사회학부 부교수, e-mail: jhjung@snu.ac.kr

I. 서 론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과거에 비해서는 전반적으로 줄어드는 추세에 있으나, 대부분의 국가에서 여전히 큰 폭으로 남아있다. OECD 국가들의 경우, 1970년대 말에서 1990년대 후반 사이에 성별 임금격차가 대부분 줄어들기는 했으나, 1990년대 후반에도 여성 전일제 임금근로자의 주당 임금의 중앙값은 남성 전일제 근로자 임금의 70-80% 수준에 머물러 있다(Blau and Kahn, 2000).¹⁾ UNDP(2006) 보고서에 의하면, 남성의 근로소득 대비 여성의 근로소득 수준은 스웨덴(0.81)이 가장 높고 미국(0.62)이 중간 정도이며, 우리나라(0.46)는 일본, 멕시코, 터키 등과 함께 OECD 국가들 중 최하위를 기록하고 있다.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고 또 오랫동안 지속되면서, 성별 소득격차의 원인에 대해 많은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 기존 연구들에서는 인적자본 특성(학력이나 경력 등)이나 기타 생산성과 관련된 변수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성별 소득격차의 상당 부분이 설명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이 성별 소득격차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되어 왔다.²⁾

성별 근로소득 격차 및 그 원인에 대한 기존 연구들은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는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자영업 부문의 비중이 매우 작고 또 꾸준히 줄어드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임금근로 부문에 비해 자영업 부문에서 대규모의 신뢰성 있는 노동통계 자료를 구하기 어렵다는 점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자영업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그 원인에 대한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연구들에서 차별에 대한 논의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을 전제로 하고 있으나, Becker(1957)의 지적대로, 노동시장차별은 고용주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고객)에 의해서도 이루어진다. 임금근로의 경우 고용주차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하면, 자영업의

1) 성별 임금격차는 OECD 국가들 내에서도 편차가 크다. 1990년대 후반의 자료 비교가 가능한 17개 OECD 국가들의 경우, 남성 대비 여성 전일제 근로자의 주당 임금 중앙값은 미국이 0.76으로 중간 수준이며, 벨기에(0.90)가 가장 높고 일본(0.64)이 가장 낮다.

2) (관찰된) 생산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성별 소득격차가 상당히 크다는 것은,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격차의 영향을 감안하더라도 차별에 의한 격차가 어느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경우에는 소비자차별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임금근로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의 요인과 자영업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의 요인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노동시장차별이 발생하고 지속되는 메커니즘에 대한 이해의 폭을 넓힐 수 있으며, 성별 소득격차의 완화를 위한 정책적 접근에 있어서도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라는 두 집단을 대상으로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요인별 영향력을 비교 분석하고자 한다.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는 Oaxaca and Ransom(1994)의 분해방법을 사용한다.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 각 집단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를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productivity-related gap)와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non-productivity-related gap;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 및 차별로 인한 소득격차)로 분해하고, 가격 차이는 다시 남성에 대한 특혜(male advantage)와 여성에 대한 불이익(female disadvantage)으로 구분한다. 또한,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산업별·직업별 분포가 상이하며, 산업 및 직업의 특수성이 차별관행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산업 및 직업별로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를 실시한다.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 비교 연구는 우리나라에서 특히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첫째는 한국 노동시장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꾸준히 줄어들고는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들 중 가장 크다는 것이며, 이는 그만큼 성별 소득격차나 차별이 중요한 현실적 문제라는 것을 의미한다. 둘째는 우리나라의 경우 총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중이 27%(2004)에 달하여 OECD 국가들 중 가장 높다는 점으로,³⁾ 이는 자영업이 우리나라 경제에 있어 매우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또한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자영업주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자료를 활용한 통계분석이 가능하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본 연구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제 II장에서는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와 차별에 대한 기존 문헌의 검토를 통해 취업형태와 차별의 유형간의 관계를 설명한다. 제 III장에서는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 방법을 설명하고, 제 IV장에서 실증분석에 사용된 자료 및 표본특성에 대해 설명한다. 제 V장에서 임금근로자와

3) 우리나라는 2004년 현재 총취업자의 27.1%,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 취업자의 24.1%가 자영업주이다. 우리나라의 자영업주 비중은 30개 OECD 국가 중 멕시코와 터키를 제외하고는 가장 높은 수치이다(OECD, 2003).

자영업주에 대한 실증분석 결과를 살펴보고, 마지막으로 제 VI장에서 주요 연구결과를 요약하고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한다.

II. 이론적 배경: 차별의 유형과 취업형태

성별 소득격차와 차별에 대한 기존의 실증연구들은 거의 대부분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Hellerstein et al., 2002; Horrace and Oaxaca, 2001; Blau and Kahn, 2000; Fields and Woiff, 1995), 이는 차별의 여러 유형 중 고용주차별에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는 것을 의미한다. 기존의 연구결과들은, 정도의 차이가 있기는 하나, 성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생산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으며, 따라서 노동시장에서의 차별(고용주차별)이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으로 요약된다.

그러나 노동시장에서의 차별은 고용주뿐 아니라 소비자에 의해서도 이루어지며, 차별이 어떤 경로를 통해 주로 이루어지는가는 취업형태나 업무특성에 따라 다르다. 일반적으로,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없는 업무라면 소비자차별보다는 고용주차별의 영향이 클 것이며, 소비자와 직접적인 접촉이 많은 업무일수록 고용주차별보다는 소비자차별의 영향이 클 것이다(Becker, 1957).

이러한 논리를 취업형태와 연결시켜 본다면, 임금근로자는 소비자보다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에 더 많은 영향을 받는 반면, 자영업주는 고용주에 의한 차별은 없는 대신 소비자로부터 받는 차별에는 완전히 노출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차별은 그 성격이 다르다. 임금근로 내에서도 소비자와의 접촉도 등에 따라 고용주차별과 소비자차별의 상대적인 크기가 다를 수 있으나, 소비자차별만 존재하는 자영업과 고용주차별의 영향력이 절대적인 임금근로와의 차이는 분명하다. 임금근로자도 상품시장에서 고객을 상대로 하는 경우 소비자들에 의한 차별에 노출될 수 있으나, 그 차별의 효과는 임금근로자에게 직접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고용주를 통하여 간접적으로 나타나게 된다. 예를 들어, 여성에 대한 소비자차별이 고착화되어 있고 고용주가 이를 알고 있다면, 여성에 대한 차별적 성향이 없는 고용주는 여성 근로자를 소비자와의 접촉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에 배정함으로써 소비자차별의 영향을 최소화할 수 있다.

여성에 대한 차별이 주로 고용주차별에 의한 것이라면, 임금근로에 비해 (고용주

차별이 없는) 자영업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적인 소득수준이 높을 것이며, 고용주차별을 피해 여성들이 자영업에 몰리면서 자영업에서 여성의 비율이 높을 것이라는 가설이 가능하다.⁴⁾ 그러나 자영업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를 분석한 몇몇 연구들의 결과는 이러한 예측과는 상반된다. Moore(1983)는 미국의 CPS 자료를 사용하여 인적자본 특성들을 통제하고 나서도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남성 대비 여성의 상대소득 수준이 더 낮다는 것을 보이고, 이는 현실적으로 소비자차별이 상당히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하였다. Hundley(2000) 역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더 크다는 것을 밝히고 있으나, 이는 시장노동과 비시장노동에 대한 성별 특화의 정도가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훨씬 뚜렷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자영업 비중 또한 여성보다 남성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서, 고용주차별이 지배적일 경우에 예상되는 현상과는 대비된다(Rosti and Chelli, 2005; Cowling and Taylor, 2001).

성별 소득격차나 차별에 대한 국내 연구들 역시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들이며, 자영업을 대상으로 성별 소득격차 및 차별을 분석한 연구는 찾아보기 어렵다. 자영업에 관한 국내의 기존 연구들은 주로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류재우, 2004; 전병유, 2003; 김우영, 2000; 금재호·조준모, 2000), 혹은 자영업주와 임금근로자의 소득결정요인 차이(최강식 외, 2005) 등을 다루고 있다. 일부 연구들은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을 분석하거나(성지미, 2002)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을 성별로 분리하여 분석하였으나(안주엽, 2002), 자영업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분석은 이루어진 바 없다. 임금근로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들의 경우, 총 임금격차의 30~40% (안주엽 외, 2007; 금재호, 2001; Bai and Cho, 1992; 박세일, 1984)에서 많게는 50~60% (유경준, 2001; 어수봉, 1991) 정도가 생산성 차이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 즉, 가격 차이(차별적 요인)에 의한 격차인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⁵⁾

4) 고용주차별을 피해 여성들이 자영업으로 집중될 것이라는 가설은 자영업에 대한 진입장벽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는 점에서 주의를 요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이 불완전하고 남성보다 여성에 대해 자본제약이 더 큰 진입장벽으로 작용한다면, 여성들의 자영업 진입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

5) 가격 차이(차별적 요인)에 의한 임금격차의 크기는 구체적인 추정방법과 사용자료 및 연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 성별 임금격차의 상당 부분이 차별적 요인에 기인한다는 것은 기존 연구들의 공통적인 결론이다.

이상의 논의들을 정리해보면, 임금근로의 경우 상당한 크기의 성별 임금격차가 존재하고, 여기에는 고용주차별이 일정 부분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자영업의 경우 임금근로에 비해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나, 성별 소득격차의 크기가 차별의 상대적 크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자영업에서의 소비자차별과 임금근로에서의 고용주차별의 상대적 크기는 특히 산업이나 직업에 따라 다른 양상을 나타낼 것으로 보인다.

III. 분석방법

1. 소득격차의 요인분해

성별 근로소득 격차는 남녀 근로자의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와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로 분해할 수 있으며, 통상 동일한 생산요소에 대한 가격 차이로써 차별의 상대적 크기를 추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Oaxaca and Ransom(1994)의 요인분해 방법을 사용하여 성별 소득격차를 분석한다.⁶⁾

개별 근로자는 임금근로(p)와 자영업(s) 중 하나의 섹터에서 근무하며,⁷⁾ 남성(m) 근로자 i 와 여성(f) 근로자 j 의 근로소득은 각각 다음과 같이 결정된다고 하자.

$$\ln W_{mi} = X'_{mi}\beta_m + u_{mi}, \quad E(u_{mi} | X_{mi}) = 0 \quad (1)$$

$$\ln W_{fj} = X'_{fj}\beta_f + u_{fj}, \quad E(u_{fj} | X_{fj}) = 0 \quad (2)$$

여기서 W_{mj} = 남자 근로자 i 의 근로소득,

W_{fi} = 여자 근로자 j 의 근로소득,

X_{mi} = 남자 근로자 i 의 인적자본 특성(생산성) 변수 벡터,

6) 성별 소득격차의 요인분해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Oaxaca and Ransom의 분해방법은 다른 대안적인 방법들을 포괄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으로서 생산성 변수들의 설명력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성을 갖는다. Oaxaca and Ransom(1994), Silber and Weber(1999) 참조.

7) 표기의 편의상 이하에서는 특별히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섹터 표시는 생략한다.

X_{fi} = 여자 근로자 j 의 인적자본 특성(생산성) 변수 벡터.

동일한 섹터에서 남자(m) 근로자 집단과 여자(f) 근로자 집단간의 평균 근로소득 차이, 즉 성별 총소득격차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G_{mf} = (W_m / W_f) - 1 \quad (3)$$

여기서 W_m = 남자 근로자 집단 근로소득의 기하평균,

W_f = 여자 근로자 집단 근로소득의 기하평균.

식 (3)에 자연대수를 취하고, 앞 서의 소득함수식 (1) 과 (2) 를 대입하면 총소득격차의 대수치는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begin{aligned} \ln(G_{mf} + 1) &= \bar{X}'_m \hat{\beta}_m - \bar{X}'_f \hat{\beta}_f \\ &= (\bar{X}'_m - \bar{X}'_f) \beta^* + \bar{X}'_m (\hat{\beta}_m - \beta^*) + \bar{X}'_f (\beta^* - \hat{\beta}_f) \end{aligned} \quad (4)$$

여기서 \bar{X}_m = 남자 근로자 집단의 인적자본 특성(생산성) 변수들의 평균,

\bar{X}_f = 여성 근로자 집단의 인적자본 특성(생산성) 변수들의 평균,

$$\beta^* = \Omega \hat{\beta}_m + (I - \Omega) \hat{\beta}_f, \quad \Omega = (X'_m X_m)^{-1} (X'_m X_m).$$

식 (4)의 첫 번째 항은 남녀간 (관찰된) 인적자본 특성의 차이에 따른 소득격차이고,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은 추정된 회귀계수의 차이이다. 통상 총소득격차에서 첫 번째 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인적자본의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 또는 생산성 격차”라고 하고, 두 번째 및 세 번째 항이 차지하는 비중을 “차별에 의한 임금격차, 혹은 가격 격차”라고 칭한다. 특히, 두 번째 항은 차별로 인하여 남자가 이익을 보는 부분이고, 세 번째 항은 차별로 인하여 여자가 불이익을 받는 부분이다.⁸⁾

8) Oaxaca (1973)의 임금격차 분해에서는 두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의 구분 없이 그 합계만을 차별의 크기로 보았다. 그러나 이 두 항의 구분은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예를 들어 차별이 없는 경우의 임금구조(no-discrimination wage structure)가 두 번째 항의 경우처럼

엄밀한 의미에서 이러한 해석은 차별의 크기를 왜곡시키는 문제가 있다(Altonji and Blank, 1999). 첫째, 위와 같이 측정된 차별의 정도는 실제 차별의 크기보다 과대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식 (4)에서 생산성 차이를 나타내는 첫 번째 항은 관찰 가능한 인적자본 특성만을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은 인적자본 특성(능력, 성실성 등)은 통제하지 않은 상태에서 추정된다. 따라서 관찰되지 않은 인적자본의 특성(unobserved heterogeneity) 차이로 인한 임금격차가 차별로 간주될 수 있다. 즉, 식 (1)에서 오차항의 기대치는 0이 아니라 관찰되지 않은 특성에 따른 생산성 요인(X_i^u)과 순수 오차항(ϵ_i)으로 나누어진다는 것이다. 성별을 구분하는 하첨자를 생략하고 이를 수식으로 표시하면 다음과 같다.

$$E(u_i | X_i) = X_i^u \gamma + \epsilon_i, \quad E(\epsilon_i | X_i, X_i^u) = 0.$$

따라서 관찰된 특성만 통제하고 관찰되지 않은 인적자본 특성을 통제하지 않으면 차별의 정도는 실제보다 과대추정될 수 있다.

둘째, 이와는 반대로 식 (4)와 같이 추정된 차별의 정도는 실제의 차별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 특정 집단에 대한 차별은 임금뿐 아니라 직업선택이나 승진에 있어서도 이루어지며, 노동시장 참여 훨씬 이전의 인적자본 형성단계에서부터 이루어질 수 있다.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 차별 때문에 여성에 대한 인적자본 투자가 남성에 비해 제한된다면, 노동시장에서 관찰되는 차별은 실제의 차별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⁹⁾ 마찬가지로, 노동시장차별이 여성의 취업형태나 직업 선택에 영

현재 남자의 임금구조와 같다면 (즉, 여성에 대한 불이익만 존재하고 남성에 대한 특혜는 존재하지 않는 경우) 차별이 없어지더라도 여자의 임금만 상승하고 남자의 임금은 변화가 없다. 따라서 여자에 대한 차별 철폐를 남자가 반대할 이유가 없다. 그러나 세 번째 항의 경우처럼 차별이 없는 경우의 임금구조가 현재 여자의 임금구조와 같다면 (즉, 남성 특혜만 존재하고 여성에 대한 불이익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 특혜가 없어지더라도 남자의 임금만 하락하고 여자의 임금은 변화가 없다. 이 경우에는 남성의 집단적인 반발을 초래할 수 있다. 따라서 차별이 없는 경우의 임금구조 파악이 정책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Neumark(1988), Cotton(1988), Oaxaca and Ransom(1994) 등의 분해방법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 9) 차별 때문에 여성이 남성에 비해 노동시장에서 불이익을 받는다는 것을 사람들이 알고 있다면 남성에 비해 여성에 대한 인적자원 투자 유인이 줄어들며, 개인 혹은 가구(자녀교육)의 합리적 의사결정에 따라 여성의 인적자본 형성이 남성에 비해 저조하게 된다. 이로 인해 여성이

향을 준다면, 최종적으로 관찰되는 차별의 크기는 실제 차별의 크기보다 작을 것이다.

이와 같은 잠재적인 문제점들로 인하여 차별의 크기를 정확히 추정하기는 사실상 불가능하다. 이러한 현실적인 제약 하에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연도들의 통합자료(pooled data)를 이용한 회귀분석 이외에 고정효과모형(fixed-effect model)을 이용한 패널분석을 통해 근로자들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와 요인별 기여도를 산업 및 직업별로 나누어 추정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메커니즘에 대한 추가분석을 시도하였다.

2. 근로소득함수

성별 근로소득 격차를 분석하려면 먼저 근로소득함수의 추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아래와 같은 전형적인 임금함수를 근로소득함수로 사용한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특성의 영향력을 살펴보기 위하여, 근로소득함수의 추정에는 통합자료에 대한 회귀분석(OLS)과 패널자료에 대한 회귀분석(고정효과모형)이 사용되었다.

$$\ln W_{it} = \beta_0 + \beta_1 EDU_{it} + \beta_2 EXP_{it} + \beta_3 EXP_{it}^2 + \beta_4 TENURE_{it} + \beta_5 TENURE_{it}^2 + \beta_6 MARRIED_{it} + \beta_7 REGION_{it} + u_{it} \quad (5)$$

W_{it} 는 t 시점에서 근로자 i 의 시간당 근로소득, EDU_{it} 는 교육연수, EXP_{it} 는 잠재적인 노동시장경력(연령-교육연수-6), $TENURE_{it}$ 는 동일 직장에서의 근속년수를 나타낸다. $MARRIED_{it}$ 는 혼인상태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기혼=1, 기타=0), $REGION_{it}$ 은 직장소재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서울=1, 기타=0)이다. u_{it} 는 오차항이다. 임금근로자의 근로소득함수는 위의 식 (5)이고, 자영업주의 근로소득함수에는 식 (5)에 고용주 여부를 나타내는 더미변수(고용주=1, 기타=0)가 추가되었다.

남성에 비해 받게 되는 낮은 임금은 외형상으로는 생산성 차이에 기인하는 것이나 실질적으로는 차별로 인한 결과가 된다.

IV. 사용자료 및 표본특성

1. 사용자료

실증분석에는 한국노동연구원의 한국노동패널조사(KLIPS) 1차년도(1998년) 부터 6차년도(2003년)까지의 자료가 사용되었다. KLIPS에는 교육수준과 연령 등 개인의 인적자본 관련 변수들과 직업, 근로소득, 근로시간 등 다양한 노동시장 정보가 포함되어 있다. 특히, 임금근로자뿐 아니라 자영업주에 대한 풍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하고자 하는 분석에 적합하다.

실증분석은 농림어업을 제외한 전 산업에 종사하는 만15세~만64세의 자영업주 및 임금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였다. 소득수준은 2000년을 기준으로 실질소득으로 전환하여 사용하였다.

2. 표본특성

〈표 1〉에는 실증분석에 사용된 변수들의 설명과 함께 표본의 특성이 제시되어 있다. 최종표본에는 총 24,034명의 취업자가 포함되었으며, 남자가 63.6%, 여자가 36.4%이다. 임금근로자가 77.1%, 자영업주가 22.9%이며, 취업자 중 자영업주의 비율은 남자가 26.5%로 여자의 16.5%보다 높다. 자영업주 중에서 고용주의 비율도 남자가 여자보다 훨씬 높다.

남자의 경우,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년수는 12.6년이고 자영업주의 평균 교육년수는 11.8년으로, 임금근로자의 평균 교육수준이 자영업주 평균에 비해 높다. 여자의 경우에도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에 비해 평균 교육수준이 높다. 성별로 비교해보면,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에서 남자의 평균 교육년수가 여자에 비해 1년(임금근로)~1.5년(자영업) 높다. 반면, 잠재적인 노동시장경력과 근속년수는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난다. 기혼자의 비율은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가 더 높은데, 이는 자영업 종사자가 임금근로자에 비해 평균연령이 더 높은 것과 관련된다. 시간당 근로소득은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가 더 높은데, 남자의 경우에는 부문간 소득차이가 상대적으로 큰 데 비해 여자의 경우에는 부문간 소득차이가 미미하다.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 남자

가 여자보다 시간당 근로소득이 훨씬 높아, 취업형태에 관계없이 성별 소득격차가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표 1〉 주요변수의 정의 및 평균값

변수명	측정방법	남자		여자	
		임금근로	자영업	임금근로	자영업
교육	교육년수(년)	12.6 (3.19)	11.8 (2.94)	11.6 (3.67)	10.3 (3.66)
경력	만나이-교육년수-6(년)	20.4 (11.6)	26.2 (9.94)	18.1 (14.1)	27.2 (11.8)
근속	근속년수(년)	6.78 (7.63)	7.92 (7.63)	3.59 (4.91)	6.43 (7.35)
기혼	더미변수(기혼=1)	0.74 (0.44)	0.90 (0.30)	0.54 (0.50)	0.73 (0.44)
지역	더미변수(서울=1)	0.21 (0.41)	0.24 (0.43)	0.22 (0.42)	0.19 (0.39)
고용주	더미변수(고용주=1)	-	0.38 (0.49)	-	0.26 (0.44)
근로소득	시간당 근로소득 대수치 (근로소득 단위: 천원)	1.72 (0.59)	1.85 (0.79)	1.32 (0.59)	1.35 (0.88)
N		11,229	4,055	7,309	1,441

주: () 안은 표준편차.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성별 소득격차와 노동시장차별은 임금근로와 자영업이라는 취업형태가 갖는 본질적 특성 이외에 각 부문이 집중되어 있는 산업이나 직업의 특성에 의해서도 영향을 받게 된다. 〈표 2〉에서 알 수 있듯,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산업별·직업별 분포는 성별에 따라 차이를 보인다. 남녀 모두 임금근로자에 비해 자영업주의 서비스업 집중도가 높은 가운데, 특히 여자 자영업주는 거의 대부분이 서비스업 종사자이다. 직업별 분포에서도 성별 차이가 뚜렷하다. 남자 임금근로자는 기능직(38.5%)과 전문직(26.2%)에 가장 많이 몰려있고, 남자 자영업주는 서비스직(39.5%)과 기능직(37.0%)에 주로 집중되어 있다. 여자의 경우, 임금근로자는 각 직업群별로 비교적 고르게 분포되어 있는 반면, 자영업주는 74.3%가 서비스직에 몰려있고 14.6%가 전문직에 종사하고 있다.

〈표 2〉 표본의 산업별·직업별 분포

(단위: 명, %)

	남자			여자		
	임금근로	자영업	소계	임금근로	자영업	소계
산업						
제조업	3,217	711	3,928	1,758	87	1,845
	(28.7)	(17.5)	(25.7)	(24.1)	(6.0)	(21.1)
서비스업	8,012	3,344	11,356	5,551	1,354	6,905
	(71.3)	(82.5)	(74.3)	(75.9)	(94.0)	(88.9)
직업						
전문직	2,942	720	3,662	1,843	210	2,053
	(26.2)	(17.8)	(24.0)	(25.2)	(14.6)	(23.5)
사무직	1,610	45	1,655	1,553	17	1,570
	(14.3)	(1.1)	(10.8)	(21.3)	(1.2)	(17.9)
서비스직	941	1,601	2,542	1,640	1,071	2,711
	(8.4)	(39.5)	(16.6)	(22.4)	(74.3)	(31.0)
기능직	4,328	1,500	5,828	1,231	100	1,331
	(38.5)	(37.0)	(38.1)	(16.8)	(6.9)	(15.2)
단순노무직	1,408	189	1,597	1,042	43	1,085
	(12.5)	(4.7)	(10.5)	(14.3)	(3.0)	(12.4)
합계	11,229	4,055	15,284	7,309	1,441	8,750
	(100)	(100)	(100)	(100)	(100)	(100)

주: 1) () 안은 산업별 및 직업별 구성비(%).
2) 서비스업에는 전기·가스·수도업과 건설업이 포함됨.
3) 직업분류는 한국표준직업분류(제5차 개정안) 대분류 기준: 전문직(0, 1, 2), 사무직(3), 서비스직(4, 5), 기능직(7, 8), 단순노무직(9). 농림어업 관련직(6)은 제외하였음.

V. 실증분석: 성별 소득격차의 요인분해

1. 성별 근로소득 격차 및 요인분해

〈표 3〉에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가 성별로 비교되어 있다. 교육투자의 수익률은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 남자보다 여자에게서 더 높게 나타나며, 남자는 임금근로가 자영업에 비해 교육투자 수익률이 높고 여자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교육투자 수익률이 거의 같다. 잠재적 노동시장경력과 근속년수의

소득효과는 남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여자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자에 대한 근속년수의 소득효과를 제외하고는 유의한 효과를 갖지 않는다. 이는 남성의 경우 잠재적인 노동시장경력이 사실상의 경력과 대부분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 것과 달리, 여성의 경우에는 출산과 육아 등으로 인한 경력단절 현상 때문에 잠재적인 노동시장경력과 실제 경력과의 괴리가 크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자영업주의 경우 (피고용인이 없는) 자영자에 비해 (피고용인이 있는) 고용주가 갖는 소득프리미엄의 크기는 남자가 여자보다 조금 더 크다.

〈표 3〉의 추정결과를 사용하여 성별 근로소득 격차를 요인분해한 결과는 〈표 4〉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다. 남녀간의 근로소득 격차는 임금근로가 0.401, 자영업이 0.494로,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는 전체적으로 볼 때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은 외국의 사례와 일치한다(Hundley, 2000; Moore, 1983).

성별 근로소득 격차를 생산성 차이와 가격 차이로 나누어 보면, 임금근로자의 경우 성별 소득격차 0.401 중 생산성 차이에 의한 부분이 0.201 (50.2%), 가격 차이에 의한 부분이 0.199 (49.8%)이다. 자영업주의 경우에는 성별 소득격차 0.494 중 생산성 차이로 인한 소득격차가 0.200 (40.4%),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0.294 (59.6%)이다. 성별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의 크기는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에 차이가 없으나,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의 크기가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훨씬 크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를 남성 특혜와 여성 불이익으로 구분하면,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양자간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남성 특혜가 여성 불이익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¹⁰⁾

가격 차이가 생산성과 무관한 노동시장 차별뿐 아니라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포함한다는 것은 전술한 바와 같다. 따라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가격 차이에 의한 성별 소득격차가 더 크다는 것은 남녀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가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고,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차별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차별이 더 크기 때문일 수도 있다.

10) 근로소득함수 추정식의 R^2 값이 0.21 (남자 자영업) ~ 0.36 (남자 임금근로) 으로 현재 모형으로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크다는 점에서, 이러한 해석에는 주의를 요한다.

〈표 3〉 근로소득함수의 추정결과: 전체표본, OLS

종속변수=시간당 근로소득 대수치

변수	임금근로		자영업	
	남자	여자	남자	여자
교육	0.068** (37.3)	0.075** (27.3)	0.060** (12.6)	0.077** (8.34)
경력	0.032** (18.4)	-0.001 (-0.68)	0.034** (6.30)	-0.006 (-0.77)
경력 ² /100	-0.063** (-19.4)	0.011** (3.09)	-0.063** (-6.51)	0.005 (0.40)
근속	0.028** (15.9)	0.052** (18.6)	0.015** (3.87)	0.002 (0.29)
근속 ² /100	-0.030** (-4.76)	-0.088** (-7.12)	-0.040** (-2.92)	0.006 (0.21)
기혼	0.154** (11.8)	0.035* (2.22)	0.163** (4.14)	-0.007 (-0.14)
지역	0.051** (4.56)	0.095** (6.61)	0.039 (1.46)	0.188** (3.43)
고용주	-	-	0.400** (16.7)	0.379** (7.70)
1999년도 더미	-0.019 (-1.22)	0.011 (0.48)	-0.110** (-2.99)	-0.080 (-1.03)
2000년도 더미	0.032* (2.08)	0.016 (0.68)	0.005 (0.13)	-0.017 (-0.21)
2001년도 더미	0.098** (6.07)	0.107** (4.50)	0.134** (3.34)	0.066 (0.79)
2002년도 더미	0.145** (9.28)	0.157** (6.75)	0.204** (5.44)	0.170* (2.12)
2003년도 더미	0.229** (13.8)	0.214** (9.00)	0.235** (5.78)	0.141 (1.70)
상수항	0.211** (0.032)	0.125** (2.84)	0.281** (2.96)	0.480** (2.82)
R ²	0.36	0.30	0.21	0.22
N	11,229	7,309	4,055	1,441

주: 1) () 안은 t값.
2) ** p<0.01, * p<0.05.

〈표 5〉의 요인분해 결과는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관찰

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통제한 결과이다. 단, 패널분석 결과는 패널자료의 한계 상 통합자료를 사용한 OLS 결과에 비해 설명력이 낮아, OLS 결과에 대한 보완자료로만 제시하였다.¹¹⁾ 〈표 4〉에서의 요인분해 결과와 마찬가지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월등히 크며, 임금근로의 경우 남성 특혜와 여성 불이익의 상대적 크기가 비슷한 반면 자영업에서는 남성 특혜의 크기가 여성 불이익에 비해 2배 가까이 크다. 남녀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통제하고 나서도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가격 차이에 의한 성별 소득격차가 월등히 크다는 것은,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의 영향이 훨씬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 〈표 4〉의 OLS 결과에 비해 〈표 5〉의 패널분석 결과에서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훨씬 작게 나타나는 것은,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효과가 남성에 비해 여성에게서 높다는 것을 시사한다. 특히 자영업의 경우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통제하면 생산성 차이에 의한 성별 소득격차가 마이너스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이 남성 자영업주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에게서 그만큼 크다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 전체표본, OLS

	생산성 차이 (A)	가격 차이			합계 (A+B+C)
		남성 특혜 (B)	여성 불이익 (C)	소계 (B+C)	
임금근로	0.201 (50.2)	0.111 (27.8)	0.088 (22.0)	0.199 (49.8)	0.401 (100)
자영업	0.200 (40.4)	0.189 (38.3)	0.105 (21.3)	0.294 (59.6)	0.494 (100)

주: () 안은 성별 총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11) 익명의 한 심사자는 분석대상 기간 중 종사상지위에 변경이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패널분석을 실시할 것을 제안하였는데, 이 경우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 성별 총소득격차는 다소 줄어들었으나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고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남성 특혜에 의한 가격 차이가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났다. 전반적으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한 패널분석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았다. 단, 표본수가 612명에 불과하고 분석결과의 유의성이 매우 낮아 본문에서 별도로 결과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표 5〉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 전체표본, Fixed Effect Model

	생산성 차이 (A)	가격 차이			합계 (A+B+C)
		남성 특혜 (B)	여성 불이익 (C)	소계 (B+C)	
임금근로	0.091 (22.8)	0.164 (40.9)	0.145 (36.3)	0.309 (77.2)	0.401 (100)
자영업	-0.044 (-9.0)	0.356 (72.0)	0.183 (37.0)	0.538 (109.0)	0.494 (100)

주: () 안은 성별 총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성별 근로소득 격차: 산업별 비교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와 차별의 크기는 산업이나 직업의 성격에 따라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성별 및 종사상지위에 따라 산업별·직업별 분포가 다르고, 고용주에 의한 차별과 소비자에 의한 차별의 크기 또한 산업이나 직업이 갖는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하에서는 산업(제조업, 서비스업)과 직업(전문직, 사무직, 생산직) 분류에 따라,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 및 요인별 영향력을 비교한다.¹²⁾

〈표 6〉에 의하면, 성별 소득격차는 제조업에 종사하는 임금근로자에게서 가장 크게 나타나며,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 제조업 자영업주, 서비스업 임금근로자의 순으로 작아진다. 즉, 제조업에서는 임금근로자가 자영업주에 비해 성별 소득격차가 크고, 서비스업에서는 임금근로자보다 자영업주의 성별 소득격차가 크다. 성별 소득격차에 있어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상대적인 크기가 산업 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다.

성별 소득격차 중 가격 차이에 의한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 보면 흥미로운 결과도 출된다. 제조업의 경우 성별 소득격차의 크기는 자영업(0.431)에 비해 임금근로(0.625)에서 훨씬 크다. 그러나 임금근로의 경우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0.236, 총소득격차의 37.9%)가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0.388, 총소득격차의 62.1%)에 비해 상대적으로 작은 것과 대조적으로, 자영업에서는 소득격차의 대부분

12) 산업별·직업별 분석에서는 패널자료의 표본 수 제한 등으로 실증분석 결과의 유의성이 낮아 OLS 결과만 제시하였다.

분이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0.344, 총소득격차의 79.8%)이고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0.087, 총소득격차의 20.2%)는 상대적으로 작다.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더 크며, 생산성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는 큰 차이가 없는 가운데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매우 크다. 가격 차이를 남성 특혜와 여성 불이익으로 구분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 모두에서 임금근로는 양자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작으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남성 특혜가 여성 불이익에 비해 훨씬 크다.

〈표 6〉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 산업별 비교, OLS

	생산성 차이 (A)	가격 차이			합계 (A+B+C)
		남성 특혜 (B)	여성 불이익 (C)	소계 (B+C)	
제조업					
임금근로	0.236 (37.9)	0.191 (30.5)	0.197 (31.6)	0.388 (62.1)	0.625 (100)
자영업	0.344 (79.8)	0.144 (33.4)	-0.057 (-13.2)	0.087 (20.2)	0.431 (100)
서비스업					
임금근로	0.192 (58.0)	0.082 (24.8)	0.057 (17.2)	0.139 (42.0)	0.331 (100)
자영업	0.173 (36.6)	0.191 (40.4)	0.109 (23.0)	0.300 (63.4)	0.474 (100)

주: () 안은 성별 총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남녀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가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에 체계적으로 다르지 않다면, 제조업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이 뚜렷하고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이 훨씬 지배적이라는 해석이 가능하다.¹³⁾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이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크게 나타나는 것은, 상품을 거래하는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를 거래하는 서

13)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고려한 패널분석 결과는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OLS 결과에 비해 패널분석 결과에서는 임금근로와 자영업 공히 차별적 요인(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더 크게 나타나고, 업종간 차이도 더 뚜렷하다.

스업에서 소비자의 기호(taste)가 상대적으로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할 것이라는 점에서 설득력을 갖는다. 또한, 제조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상대적으로 중소기업의 고용주 비중이 높고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자영업주는 영세규모의 고용주와 자영자의 비중이 절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감안하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은 일정규모 이상의 고용주보다는 영세규모의 고용주 및 자영자에게 상대적으로 집중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 성별 근로소득 격차: 직업별 비교

성별 근로소득 격차와 차별의 상대적 크기는 직업에 따라서도 다를 것으로 기대된다. 임금근로에서의 성별 격차에 대한 기존 연구에서는 전문직과 같은 상위직종에서는 성별 임금격차의 크기도 작고 차별적 요인의 영향도 작은 반면, 생산직이나 서비스직과 같은 하위직종에서는 성별 임금격도 크고 차별적 요인의 영향도 큰 것으로 분석된 바 있다(Jung and Choi, 2004; 서병선·임찬영, 2002). 이하에서는 임금근로에서의 이러한 직업별 차이가 자영업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는지, 또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차이가 직업에 따라 유의한 차이를 보일 것인지에 대해 분석한다.

〈표 7〉에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크기를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와 자영업 모두 전문직에서 성별 근로소득 격차가 작고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크다. 그러나 성별 소득격차를 생산성 차이와 가격 차이로 나누어 보면, 임금근로와 자영업이 다른 유형을 보인다. 임금근로는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전문직에서 가장 작고 사무직과 생산직 순으로 커지는 반면, 자영업에서는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는 직업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으며 다만 성별 생산성 차이가 전문직에 비해 사무직과 생산직에서 더 크기 때문에 전체적인 소득격차가 전문직에서 가장 작게 나타나는 것이다. 가격 차이를 남성 특혜와 여성 불이익으로 구분해 보면, 대부분의 경우 남성에 대한 특혜의 크기가 여성에 대한 불이익의 크기를 상회하나, 전문직 자영업과 생산직 임금근로에서는 남성 특혜에 비해 여성 불이익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난다.

각 직업별로 임금근로와 자영업간의 차이를 비교해 보면, 전문직의 경우 성별 소득격차는 자영업에 비해 임금근로에서 크게 나타난다. 그러나 임금근로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는 주로 생산성 차이를 반영하며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는 크지 않은

반면, 자영업에서의 성별 소득격차는 거의 전적으로 가격 차이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즉, 전문직의 경우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은 작은데 비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은 상대적으로 큰 것으로 보인다. 사무직의 경우에는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크며, 생산직은 임금근로가 자영업에 비해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크다.

〈표 7〉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 직업별 비교, OLS

	생산성 차이 (A)	가격 차이			합계 (A+B+C)
		남성 특혜 (B)	여성 불이익 (C)	소계 (B+C)	
전문직					
임금근로	0.246 (73.7)	0.049 (14.7)	0.039 (11.6)	0.088 (26.3)	0.334 (100)
자영업	0.007 (2.5)	0.074 (26.7)	0.196 (70.8)	0.270 (97.5)	0.277 (100)
사무/서비스직					
임금근로	0.272 (56.0)	0.159 (32.7)	0.055 (11.3)	0.214 (44.0)	0.486 (100)
자영업	0.189 (41.8)	0.178 (39.4)	0.085 (18.8)	0.263 (58.2)	0.452 (100)
기능/단순직					
임금근로	0.125 (26.1)	0.161 (33.6)	0.193 (40.3)	0.354 (73.9)	0.478 (100)
자영업	0.175 (39.0)	0.239 (53.4)	0.034 (7.6)	0.273 (61.0)	0.447 (100)

주: 1) () 안은 성별 총소득격차에서 차지하는 비중(%).

2) 사무직은 사무직과 서비스직, 생산직은 기능직과 단순노무직.

임금근로의 경우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전문직에서 가장 작고 생산직에서 가장 크게 나타나는 것은, 전문직에서 생산성과 무관한 차별로 인한 기업의 경제적 손실(Becker, 1957)이 상대적으로 커서 고용주차별이 작은 반면 생산직으로 대변되는 남성친화적 환경에서 여성에 대한 차별이 크기 때문으로 해석할 수 있다. 물론, 생산직의 경우 전문직과 달리 교육수준이나 경력과 같은 일반적인 인적자본 변수들 이외에 근력과 같은 신체적 특성이 생산성에 중요하며 남자가 여자보다 이러한 신

체적 특성에 있어 우위에 있다면, 생산직에서의 가격 차이 가운데 실제 차별의 크기는 그만큼 줄어들 것이다. 임금근로와 달리 자영업에서는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 격차가 직업별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은, 직업 특성이나 근로자의 인적자본 특성에 관계없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해 일정 수준의 소비자차별이 존재하고 있음을 의미한다.

VI. 결론 및 제언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를 대상으로 성별 근로소득 격차와 노동시장 차별의 크기를 분석하였다. 성별 근로소득 격차의 요인분해는 임금근로자와 자영업주의 근로소득함수 추정결과를 토대로 Oaxaca and Ransom (1994)의 분해기법을 사용하여 이루어졌다. 주요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표본을 대상으로 한 경우, 성별 평균 근로소득 격차는 임금근로자가 0.401, 자영업주가 0.494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성별 소득격차가 조금 더 크게 나타난다. 성별 소득격차를 생산성 차이에 의한 부분과 가격 차이(차별적 요인)에 의한 부분으로 나누어 보면, 자영업주의 경우 생산성 차이로 인한 근로소득 격차가 0.200,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 격차가 0.294로서, 임금근로자(생산성 요인 0.201, 가격 요인 0.199)와 비교하여 생산성 차이의 크기는 같으나 가격 차이의 크기가 훨씬 크다. 고정효과모형에 의한 패널분석을 통해 근로자의 관찰되지 않은 생산성 차이를 통제해도 이러한 차이는 여전하다. 이는 전체적으로 보면 사업장에 고용되어 있는 여성 임금근로자가 고용주로부터 받는 차별에 비해 여성 자영업주가 소비자로부터 받는 차별이 더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 임금근로자나 자영업주 모두 남성 특혜에 의한 가격 차이가 여성 불이익에 의한 가격 차이보다 크며, 특히 자영업주에게서 그 차이가 큰 것으로 나타난다.

둘째, 성별 소득격차에 있어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차이는 산업에 따라 다르다.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는 제조업 임금근로자가 가장 크고 그 다음이 서비스업 자영업주이며, 제조업 자영업주가 가장 작다. 이러한 결과는 패널분석에서도 그대로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제조업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은 크나 (중소규모 고용주 중심의)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은 작은 반면,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차별은 상대적으로 작은 반면 (영세규모

고용주 및 자영자 중심의)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은 큰 것으로 보인다. 또한, 임금근로에 비해 자영업에서 남성 특혜에 의한 가격 차이가 여성 불이익에 의한 가격 차이를 큰 폭으로 상회한다.

셋째, 직업별로 비교해 보면,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전문직에서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가장 작고 사무직과 서비스직으로 갈수록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커진다. 그러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가격 차이에 의한 소득격차가 직업에 관계없이 비슷한 수준을 보이고 있다. 즉, 임금근로의 경우에는 전반적인 인적자본 요구수준이 높을수록 고용주차별이 작으나, 자영업의 경우에는 직업의 성격에 관계없이 일정 수준의 소비자차별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단, 자영업의 경우 사무직과 생산직에서는 남성 특혜에 의한 가격 차이가 여성 불이익에 의한 가격 차이보다 작은 것과 달리, 전문직에서는 남성 특혜에 의한 가격 차이보다 여성 불이익에 의한 가격 차이가 크다.

본 연구에서는 임금근로뿐 아니라 자영업에서도 여성에 대한 차별(가격 차이)이 성별 소득격차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이러한 차별의 영향력은 산업 및 직업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보였다. 여성에 대한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들이 주로 임금근로 부문에 집중되어 있는 현실에서, 본 연구의 결과는 노동시장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해서는 임금근로뿐 아니라 자영업에 대해서도 정책적 배려가 필요하며 특히 산업 및 직업별로 특화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

자영업은 우리나라 노동시장에서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무엇보다도 규모 면에서 총취업자의 30% 가까이가 자영업 종사자이며, 노동시장 충격에 대한 완충채로서의 자영업 부문의 역할도 큰 것이 사실이다. 그러면서도 정책적으로는 상대적으로 소외되어 왔으며, 노동시장차별 해소를 위한 정책들도 대부분 임금근로 부문에 집중되어 왔다. 그러나 본 연구의 결과에서 보듯,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고용주 차별 이상으로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소비자차별이 영향을 미치고 있으며, 상위직 종일수록 차별이 줄어드는 임금근로와 달리 자영업에서는 직업에 관계없이 상당한 정도의 차별이 존재하고 있다.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 차별이 일어나는 메커니즘이 다른 만큼, 자영업에서의 차별 해소를 위한 별도의 정책이 필요하다.

아울러,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차별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 실효를 거두려면 산업 및 직업에 따라 특화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 제조업에서는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크고 서비스업에서는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차별이 크다면, 차별

해소 정책의 주요 대상이 산업에 따라 다르게 되며, 따라서 구체적인 정책대안도 산업별로 다르게 된다. 임금근로의 경우 전문직에서는 생산성 차이가 성별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고 생산직에서는 차별(가격 차이)이 소득격차의 주요 원인이라는 점에서, 전문직에서는 여성의 생산성 제고가 주요 정책목표가 되고 생산직에서는 여성에 대한 차별을 줄이는 것이 주요 정책목표가 될 것이다. 반면, 자영업에서는 모든 직업에서 상당한 정도의 차별이 존재하는데, 이러한 차별을 해소하려면 각 직업의 특성에 맞는 접근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의 분석결과와 관련하여 추후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들이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는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차별이 산업 및 직업별로 다르게 나타나는 메커니즘이다. 여성 임금근로자에 대한 차별이 서비스업에 비해 제조업에서 훨씬 심각한 데 비해 여성 자영업주에 대한 차별은 제조업에 비해 서비스업에서 훨씬 크다고 할 때, 이러한 차이를 초래하는 메커니즘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특히 근로자의 생산성에 영향을 미치면서도 일반적으로 측정되지 않는 근로자특성 변수들의 산업별·직업별 상대적 중요도에 대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러한 분석을 통하여 차별의 원인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단과 실효성 있는 정책대안의 발굴이 가능할 것이다.

둘째는 임금근로 혹은 자영업 선택의 내생성 문제이다. 직업을 선택할 때 개인은 일반적으로 여러 대안을 놓고 예상되는 생애소득(혹은 생애효용)이 가장 높은 직업을 선택하게 되며(Roy, 1951), 이러한 의사결정 과정에서 여성은 각 대안을 선택했을 때 예상되는 차별적 요인을 고려하여 결정을 내릴 수 있다. 즉, 여성에 대한 노동시장차별이 일반화되어 있다면, 여성은 각 직업을 선택했을 때 노동시장에서 향후 받게 될 차별을 고려한 기대생애소득을 기준으로 직업을 선택할 것이다. 따라서 임금근로와 자영업에서의 차별의 크기를 정확히 비교하기 위해서는 취업형태를 스스로 선택함에 따라 발생하는 선택편의(selection bias)를 고려해야 할 것이다.

■ 참 고 문 헌

1. 김재호 · 조준모, “자영업의 선택에 관한 이론 및 실증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pp. 81-108.
2. 김우영, “취업형태의 비교우위와 자영업주의 결정요인에 대한 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pp. 55-80.
3. 류재우, “자영업 부문의 소득기회와 선택성,” 『경제학연구』, 제52집 제2호, 2004, pp. 5-32.
4. 서병선 · 임찬영, “직종선택과 성별 임금격차,” 『국제경제연구』, 제8권 제1호, 2002, pp. 15-54.
5. 성지미, “여성의 자영업 결정요인과 경력단절 가능성,” 『노동경제논집』, 제25권 제1호, 2002, pp. 161-182.
6. 안주엽, “경기변동과 일자리 탐색기간 임금근로와 자영업의 선택,” 『노동경제논집』, 제23권 특별호, 2000, pp. 109-132.
7. 안주엽 외, 『노동과 차별(Ⅱ): 인식과 실제』, 한국노동연구원, 2007.
8. 전병유, “자영업 선택의 결정요인에 관한 연구,” 『노동경제논집』, 제26권 제3호, 2003, pp. 149-179.
8. 최강식 · 정진욱 · 정진화, “자영업 부문의 소득분포 및 소득결정요인: 분위회귀분석,” 『노동경제논집』, 제28권 제1호, 2005, pp. 135-156.
9. Altonji, Joseph G. and Rebecca M. Blank, “Race and Gender in the Labor Market,” In: Orley Ashenfelter and David Card (eds.), *Handbook of Labor Economics*, Vol. 3, Amsterdam: Elsevier Science, 1999.
10. Bai, Moo Ki and Woo Hyun Cho,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the Segmented Labor Markets of Korea,” *Korean Journal of Labor Economics*, Vol. 15, 1992, pp. 1-35.
11. Becker, Gary S., *The Economics of Discrimination*, Chicago: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57, 1971.
12. Blau, Francine D. and Lawrence M. Kahn, “Gender Differences in Pay,” *Journal of Economic Perspectives*, Vol. 14, No. 4, 2000, pp. 75-99.
13. Borjas, George J. and Stephen G. Bronars, “Consumer Discrimination and Self-Employment,”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Vol. 97, No. 3, 1989, pp. 581-605.
14. Cotton, Jeremiah, “On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70, 1988, pp. 236-243.
15. Cowling, Mare and Mark Taylor, “Entrepreneurial Women and Men: Two Different Species?”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16, 2001, pp. 167-175.
16. Fields, Judith and Edward N. Woiff,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nd the Gender Wage Gap,”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49, 1995, pp. 105-120.
17. Hellerstein, Judith, David Neumark and Kenneth R. Troske, “Market Forces and Sex Discrimin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37, No. 2, 2002, pp. 353-380.
18. Horrace, William C. and Ronald L. Oaxaca, “Inter-Industry Wage Differentials and the Gender Wage Gap: An Identification Problem,”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4, 2001, pp. 611-618.

19. Hundley, Greg, "Male/Female Earnings Differences in Self-Employment: The Effects of Marriage, Children, and the Household Division of Labor," *Industrial and Labor Relations Review*, Vol. 54, No. 1, 2000, pp.95-114.
20. Jung, Jin Hwa and Kang-Shik Choi, "Gender Wage Differentials and Discrimination in Korea: Comparison by Knowledge Intensity of Industries," *International Economic Journal*, Vol. 18, No. 4, 2004, pp.561-579.
21. Moore, Robert L., "Employer Discrimination: Evidence from Self-Employed Workers," *Review of Economics and Statistics*, Vol. 65, No. 3, 1983, pp.496-501.
22. Neumark, David, "Employers' Discriminatory Behavior and the Estimation of Wage Discrimination," *Journal of Human Resources*, Vol. 23, 1988, pp.279-295.
23. Oaxaca, Ronald L., "Male-Female Wage Differentials in Urban Labor Markets," *International Economic Review*, Vol. 14, 1973, pp.693-709.
24. Oaxaca, Ronald L. and Michael R. Ransom, "On Discrimination and the Decomposition of Wage Differentials," *Journal of Econometrics*, Vol. 61, 1994, pp.5-21.
25. OECD, *Labor Force Statistics 1983-2003*, Paris: OECD, 2003.
26. Rosti, Lucia and Frances Chelli, "Gender Discrimination, Entrepreneurial Talents and Self-Employment," *Small Business Economics*, Vol. 24, 2005, 131-142.
27. Roy, A. D., "Some Thoughts on the Distribution of Earnings," *Oxford Economic Papers (New Series)*, Vol. 3, 1951, pp.135-146.
28. Silber, Jacques and Michal Weber, "Labour Market Discrimination: Are There Significant Differences between the Various Decomposition Procedures?," *Applied Economics*, Vol. 31, No. 3, 1999, pp.359-365.
29. UNDP, *Human Development Report*, 2006.

Gender Differentials in Earnings: A Comparison of the Self-Employment and Paid-Employment Sectors

Kang-Shik Choi* · Jin Hwa Jung**

Abstract

This study compares the self-employment and paid-employment sectors in terms of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nd their sources. Following Oaxaca and Ransom (1994),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re decomposed into the productivity-related gap and non-productivity-related gap (reflecting unobserved worker heterogeneity and discrimination).

Gender earnings differentials are, overall, larger for the self-employed than for the paid-employed, owing to the substantially larger non-productivity-related gap of the former. The relative contribution of productivity- and non-productivity-related factors to the observed earnings gap, however, varies greatly by industries and occupations. It thus calls for particular attention to the self-employment sector and also industry- and occupation-specific approaches to mitigate the gender earnings gap.

Key Words: gender earnings, discrimination, self-employment

* Professor, School of Economics, Yonsei University

** Associate Professor, Department of Economics and Rural Development, Seoul National University